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 은 진[†]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이 상 희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진로태도 성숙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두 요인간의 관계 속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소재 대학생 여자 284명과 남자 235명(총 519명)을 대상으로 부모애착 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와 진로태도성숙 척도를 실시하였다. 척도별 평균비교와 상관분석 결과, 대학생들의 부모애착, 진로태도성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남녀 별로 일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부모애착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녀 간에 유사한 결과가 나왔으나, 진로태도성숙 척도의 하위요인 별로는 남녀 간에 차이를 보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모든 하위요인들에 유의하였고, 모애착이 확신성과 준비성 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성 점수를 예측하는데는 여학생들의 경우에만 부 애착요인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모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부모애착이 진로태도 성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온 부모애착이 대학생들의 진로성숙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과 성별에 따라 부모와의 애착이 다른 영향을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들을 비교해 논의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앞으로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부애착, 모애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태도 성숙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를 번역한 용어이며, 추후 본문에서는 선행연구자들에 따라 진로결정 효능감, 진로 자기효능감, 진로 효능감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 교신저자 : 이은진,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범죄심리학과
E-mail : lej1130@hotmail.com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결정한다는 것 이상의 많은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진로상담에서 만나는 많은 학생들이 가지는 진로와 관련된 어려움들이 정서나 환경적인 어려움과도 긴밀히 관련되고 있음을 많은 상담자들은 인식해 왔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연구자들은 진로발달이 평생발달 관점으로 연장되어 연구되어야 하며, 진로성숙의 개념도 인지적인 것과 함께 정의적인 부분을 고려해야함을 강조하여 왔다. 또한 우리나라는 개인보다는 관계 중심적인 경향이 강하고 부모-자녀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보다 정서적 친밀성을 강조함으로써, 가족관계가 아동기뿐 아니라 후기 청소년기까지의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박수길, 이영희, 2002). 이러한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한 전 생애 발달 관점은 후기 청소년기 동안에도 심리적 독립뿐 아니라 부모와의 애착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Kenny, 1987; Lapsley, Rice, & Shadid, 1989).

애착은 Bowlby(1958)와 Ainsworth(1979)가 유아와 어머니의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후 아동기 뿐 아니라 청년기에 이르러서도 부모와의 애착이 안전기반이 되어주며 대인관계와 적응에 긍정적 기능을 한다는 경험적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다(Kenny, 1987; 옥정, 1998; 장휘숙, 2002). 애착에 대한 연구들은 애착 유형별로 3범주나 4범주로 구분하여 정신건강이나 사회적인 변인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거나 부모나 또래와의 애착 수준이 다른 변인들과 가지는 관계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애착을 유형별로 나누어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들은 애착을 크게 안정형과 불안정형으로 구분하고 불안정형을 회피, 불

안-양가형, 혹은 회피-두려움, 거부, 몰입형으로 나누어 상담관계, 정신건강이나 사회적 적응과의 관련성을 탐색해 왔다(김순영, 1999; 조영주, 최해림, 2001; Mallinckrock, Gantt, & Coble, 1995).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김재희와 주은선(2001)이 부적응 집단과 일반 집단의 애착 유형을 비교하여 안정애착 비율이 부적응집단에서 낮게 나타났음을 보고했다. 국내 14개 학회지에 최근 10년간 보고된 119개의 애착 관련 논문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방희정(2009)의 연구에 의하면, 학령기 이하의 아동집단을 중심으로 연구 영역을 살펴본 결과 애착유형과 양육자 특성과의 상관을 보는 연구들이 13편(17.1%)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지금까지의 애착연구들은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했으며, 아버지 애착관계가 어머니 애착관계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 졌음을 지적하였다. 애착의 대상으로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보고한 연구(Belsky, Gilstrap, & Robin, 1984)와 함께 애착대상으로서의 이차적인 역할을 보고한 연구들(Ainsworth, 1989; Rutter, 1981) 모두 아버지의 역할이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고려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애착을 주제로 한 연구 분야에서는 애착을 부모와의 친밀성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그 수준을 측정하여 다른 심리적인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박지아와 유성경(2003)은 초중고생 109명을 위험요소와 적응수준을 고려하여 적응유연성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부모애착 수준을 살펴본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환경이나 적응수준이 낮게 평가된 고위험 집단의 청소년만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적인 위험요소를 지닌 청소년들도

애착 관계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음으로 보이는 것이며, 또한 안정된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들의 적응적 성장에 중요함을 보이는 선행결과들과도 일치한다(박영림, 최해림, 2002; Noom, Dekovic, & Meeus, 1999). 개인의 적응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애착은 진로발달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도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은경, 2001; 임진, 2003; Ryan, Solburg, & Brown, 1996), 진로태도성숙(이내은, 2002; 이희영, 1999; O'Brien, 1996), 역기능적 진로사고(최현영, 서영석, 2005) 등 진로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최현영과 서영석(2005)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역기능적 진로사고에는 차이가 없으나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외적갈등과 의사결정 혼란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애착을 유형으로 나누지 않고 애착의 정의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의 애착 수준을 의미하는 개인의 애착점수를 사용하여 진로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부모와의 애착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애착이나 돌봄체계의 특성상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는 결과가 정당화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연령증가에 따라 양육의 주요차원으로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시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방희정, 2009). 일부연구들에서는 애착대상이 어머니와의 애착을 중심으로 편향되었으며, 임진(2003)은 어머니와의 애착을 측정하여 진로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을 분리하여 측정하고 변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가족과 관련된 변인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

데,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모와의 애착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Blustein, Walbridge, Friedlander, & Palladino, 1991)에서 남학생들은 아버지의 태도, 가치 및 신념들에 대해 유사한 믿음을 가질 때 진로관여를 더 많이 하며 이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들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관련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Super(1955)가 직업성숙(vocational maturity)의 개념을 소개한 후, 진로 성숙(career maturity)의 개념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되었고 진로성숙이 직업성숙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인식되어졌다. 진로성숙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한 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Super(1957)는 진로성숙을 전 생애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직업에 대한 준비 정도와 대처 행동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Crites(1978)는 진로성숙을 동일한 연령대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준비의 정도로 개념화 하고 있다. 표준화된 진로 발달 척도로 최초 출판된 Crites의 진로성숙도 검사(Career Development Inventory)는 태도 요인과 능력 요인으로 하위 척도를 구성하고 있다. 이기학(1997)은 한국대학생들의 진로태도와 관련된 차원을 구분하여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요인을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확신성, 목적성으로 제시하였다. 진로성숙이란 현실적인 진로선택에 필요한 인지적 능력과 직업세계에 참여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감정, 주관적 반응, 기질 등을 나타내는 정서적 측면인 진로 태도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들의 진로발달과정에서 중요한 타인의 영향을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고찰해야한다는 연구(이현주, 2001)들은 자녀의 부모와의 애착 수준이 진로를 포함하는 적응 전반에 영향력을 지님을 보여주고 있다.

진로 및 직업 선택과 관련된 관심 및 준비 정도에 대한 태도의 성숙 수준은 자신의 결정 및 선택에 대한 확신정도를 나타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진로발달의 초기 이론들이 가졌던 한계점들이 사회학습이론의 도입으로 보완되어졌고 Bandura의 자기 효능감 관련 연구들의 영향은 진로행동을 이해하는 연구의 폭을 넓혀갔다(Borgen, 1991; Hackett & Lent, 1992; Mitchell & Krumboltz, 1984). Hackett과 Betz(1981)는 사회학습이론을 진로행동에 적용하면서, 특히 여성의 진로발달에서 자기효능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이들은 주어진 과제 수행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라 정의한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을 진로 심리학에 소개하면서, 주어진 진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의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고 특정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까지 확장시켜갔다. 이러한 진로효능감 기대는 진로발달과정에서 특정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진로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진, 2001).

진로결정과 진로탐색 활동 등 진로발달과 관련된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 진로탐색에 대한 효능감 기대를 증진시키는 것이 진로결정이나 변화를 하려는 이들에 대한 상담에 효과적임이 강조되었다(Solberg, Good, Fischer, Brown, & Nord, 1995).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태도성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을 검증한 이기학과 이학주(2000)의 연구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태도 성숙 요인과 상관이 있었으며, 하위요인 중에서 결정성과 확신성 차원이 특히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자신의

진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개인적 확신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임진(2004)은 부모와의 애착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에서 성취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여 초기의 불안정한 애착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애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을 연구한다는 것은 진로상담을 위한 주요정보를 얻는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진로발달 관련변인들의 성차에 대한 연구들은 관계중심적인 여성의 특성으로 인해 여성이 사회·문화적 영향을 더 많이 받으므로(임정빈, 정혜정, 1997; Gilligan, 1982) 진로 발달과정에서 남성과 다른 입장에 놓이게 된다고 하였다(O'Brien, Friedman, Tipton, & Linn, 2000). 또한 성장과정에서 성 정체성을 얻어가는 사회화 과정은 남녀 간에 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초기의 불안정한 애착의 영향으로 진로성숙이나 진로결정 효능감에서도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어 왔다(이기학, 이학주, 2000). 이기학과 이학주(2000)는 남녀를 구분하여 전체적인 분석을 하지는 않았으나 진로성숙도의 남녀 차이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서는 진로효능감이나 진로성숙도 변인에서 남녀차가 없거나 일부 하위척도들에서 차이를 보고하는 등(임진, 2003; 이상희, 2007) 일관되지 않은 양상을 보여 왔다. 일부 연구자들은 성차가 없거나(Felsman & Blustein, 1999) 성차보다는 성역할특성과 관계된다는(Matsui, 1994) 외국의 연구과 다른 결과들에 대해 사회문화적인 차이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남성중심 사고방식과 사회구조 등이 여성의 진로성숙도나 진로관련 효능감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했다(강차연, 박경, 2001; 임정빈, 정혜정, 1997).

본 연구에서는 진로발달에서 진로성숙이 능력 뿐 아니라 태도 요인을 포함하며, 정서적인 안정과도 연관을 가진다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하여 대학생들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진로발달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성차 연구들은 개인적인 특성 뿐 아니라 성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에 따라 진로발달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이은경, 2000; 이항심, 2007). 진로발달과 관련된 변인들의 성차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차에 대한 연구결과들의 추이에 대한 사회적인 변화의 영향력 등 다양한 원인을 규명해 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도 사용된 변인들 간에 남녀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 진로결정 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도가 남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인가? 둘째,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도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셋째,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태도 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넷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이 진로태도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인가?

방 법

조사대상자 및 절차

서울 및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 53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설문에 성의 있게 응답하지 않거나 설문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23명을 제외한 총 519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자료 분석대상의 남학생 비율이 전체의 45.3%(235명), 여학생이 54.7%(284명)이며, 1학년이 14.3%(74명), 2학년이 23.1(120명), 3학년이 30.4%(158명), 32.3%(167명)이었다.

도 구

부모애착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옥정(1998)이 번안하여 수정 및 보완한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 개정본(Inventory of Parent and Peer-*Revised*: IPPA-R)에서 부모 애착 척도만 사용하였다. IPPA-R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또래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의 애착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도구로서 의사소통의 질, 상호신뢰감, 소외감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항 수는 25문항이며, 의사소통 차원이 9문항, 신뢰도 차원이 10문항, 소외차원이 6문항이다. 애착점수는 상호신뢰와 의사소통 차원을 합한 점수에서 소외 차원 점수를 뺀 것이다. 부모와의 애착검사는 원래 어머니와 아버지를 구별하지 않고 전체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애착양상이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와 남녀별로 아버

지와 어머니와의 애착 양상을 살펴보려는 본 연구의 취지를 바탕으로 부모를 분리해서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 형 5점 척도로 평정되며, 소외감요인을 제외한 모든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 문항들은 ‘우리 부모님은 나의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부모님에게는 내 감정을 드러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한다’와 ‘우리 부모님은 내게 너무 많은 것들 바라신다’ 등이며, 응답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것을 따로 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Armsden(1989)은 아버지와 어머니 애착 척도의 내적 합치도를 .89, .87로 보고 하였으며, 옥정(1998)은 .93, .92,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애착척도 내적 합치도는 각각 .92, .93 이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Betz와 Voyten(1997)이 구성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hort Form)를 이은진(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수집, 목표선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등의 5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이다. 단축형의 근간이 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척도(CDMSES: Taylor & Betz, 1983)는 진로결정에 요구되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개별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아주 그렇다(5)’까지의 Likert 형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다섯 가지 하위척도 점수를 합산한 것이 전체 점수이다. 각 문

항들은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선택한 직업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 등으로 자신이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정도를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Betz와 Voyten(1997)은 전체 점수에 대해 .93의 신뢰도를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90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

대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진로태도성숙의 5개 하위 영역은 10개의 결정성 문항과, 10개의 준비성 문항, 9개의 독립성 문항, 8개의 목적성 문항과, 10개의 확신성 문항으로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5가지 하위요인들은 첫째, 결정성 차원으로서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이 얼마나 확고한 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진로나 직업이 결정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두 번째 준비성 차원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이해, 준비 정도와 진로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며, 진로선택을 위한 정보수집 능력을 나타내는 차원이다. 세 번째 독립성 차원은 자신의 진로문제를 주체적으로 혹은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가와 관련된 차원이다. 네 번째 목적성 차원은 개인이 직업을 통해 구현하고자하는 목표지향성에 대한 것으로, 사회경제적 욕구보다는 자아실현, 사회적 봉사, 대인관계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더 추구하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마지막 차원인 확신성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확신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이 다. 이기학(1997)의 연구에서 하위요인들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결정성 .88, 준비성 .76, 독립성 .75, 목적성 .75, 확신성 .75로 나타났다. 전체문항에 대한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태도성숙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6으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량은 SPSS 1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부모애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도의 남녀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부모애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부모애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 성숙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위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애착과 진로태도 성숙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 (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고 Sobel test를 통해 그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성 변인에 따른 부모애착, 진로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차이

부애착과 모애착 총점과, 하위요인, 진로결

정효능감 총점과 진로성숙도 총점 및 하위요인들을 남녀 집단별로 비교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표 1). 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애착, 모애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도 총점은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하위척도들에서는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이 있었다. 부애착에서 상호신뢰 요인($t = 2.26, p < .05$)과 진로성숙도의 독립성($t = 2.46, p < .01$), 확신성($t = 2.06, p < .01$) 요인의 점수들은 남자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준비성 요인($t = -2.76, p < .01$)은 여자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애착과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변인들 일부에서 남녀 차가 유의하였으므로 이후의 분석을 남녀 집단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부모애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도 간의 관계

진로태도성숙도와 각 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변인별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애착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총점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를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척도별로 살펴보면, 독립성과 목적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태도성숙도의 총점($r = .63, p < .01$)과 하위척도 중 확신성 요인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r = .61, p < .01$).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이 안정적인수록 진로자기효능감이나 진로태도 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별로 다른 상관관계가 나타나 이를 남녀별로 구분

표 1. 성별 부애착, 모애착,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성숙도 하위요인들의 평균(표준편차)

변 인	남학생(N=235)	여학생(N=284)	전체(N=519)	성별(t)
부애착	48.52 (10.85)	47.05 (12.16)	47.71 (7.60)	1.46
1. 상호신뢰	35.52 (6.36)	34.18 (6.98)	34.79 (6.73)	2.26*
2. 의사소통	32.84 (7.47)	32.55 (8.42)	32.68 (8.00)	.43
3. 소외감	19.84 (3.98)	19.68 (4/08)	19.75 (4.03)	.44
모애착	50.72 (10.33)	50.40 (10.74)	50.55 (10.55)	.34
1. 상호신뢰	36.55 (5.82)	35.78(6.20)	36.13(6.04)	1.47
2. 의사소통	34.49 (7.12)	34.91 (7.40)	34.72 (7.27)	-.66
3. 소외감	20.32 (3.78)	20.29 (3.82)	20.30 (3.80)	.10
진로결정자기효능감	85.41 (12.56)	87.03 (12.63)	86.3 (12.6)	-.57
진로태도성숙	107.50 (14.1)	108.2(13.6)	107.9 (13.8)	-1.46
1. 결정성	21.48 (5.85)	22.15(5.75)	21.84 (5.8)	-1.31
2. 준비성	22.81 (3.69)	23.65(3.24)	23.27 (3.47)	-2.76**
3. 독립성	22.24 (3.69)	21.44(3.71)	21.80 (3.72)	2.46**
4. 목적성	19.27(4.53)	19.93(4.01)	19.63 (4.26)	-1.73
5. 확신성	21.71(3.88)	21.04(3.56)	21.35 (3.72)	2.06**

* $p < .05$, ** $p < .01$

표 2. 남녀별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변 인	여 남									
		1	2	3	4	4-1	4-2	4-3	4-4	4-5
1. 부애착			.824**	.208**	.114	.132*	.136*	-.087	-.023	.217**
2. 모애착		.738**		.244**	.146*	.104	.208**	-.063	.015	.250**
3. 진로자기효능감		.289**	.268**		.649**	.480**	.434**	.307**	.297**	.656**
4. 진로태도성숙		.228**	.201**	.596**		.710**	.511**	.707**	.713**	.712**
4-1. 결정성		.136*	.136*	.479**	.730**		.124*	.179	.351**	.405**
4-2. 준비성		.338**	.359**	.440**	.557**	.179**		.245**	.167**	.397**
4-3. 독립성		.033	-.022	.316**	.707**	.307**	.288**		.564**	.360**
4-4. 목적성		-.019	.088	.125	.565**	.273**	.013	.437**		.294**
4-5. 확신성		.294**	.310**	.583**	.677**	.307**	.518**	.377**	.050	

* $p < .05$, ** $p < .01$

하여 상관을 살펴보았다.

표 2에는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으로 나누어 부모애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연구변인별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남자 집단에서는 부에 대한 애착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상관분석 결과와 같이, 진로태도 성숙도의 하위척도인 독립성과 목적성 요인만을 제외하고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여자집단에서는 진로태도성숙도 총점과의 상관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에 다른 상관의 양상을 보인 것들은 부 애착과 진로성숙(남 $r = .228, p < .01$; 여 $r = .114, ns$),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도의 목적성 요인과 가지는 상관계수였다(남 $r = .125, ns$; 여 $r = .297, p < .01$). 그리고 부애착이 여자집단과 달리 남자집단에서는 진로태도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부애착과 모애착이 남녀 집단에서 다소 다른 영향력을 가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체 표본의 수가 많지 않으므로 조심스런 해석을 요한다.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부모애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설명력

애착의 정서·사회적 측면에 주목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모애착의 효과가 언급되었으며, 부애착은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척도 요인별로 나누어 부모 애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갖는 설명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부모애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남녀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도를 예측하는 상대적 영향력을 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후, 유의미하게 나온 결과만을 표 3에 남자 [$F(1, 233), p < .001$] 와 여자 [$F(1, 283), p < .001$] 집단별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진로태도성숙도에 대해서 남녀 집단 모두 대체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남, $\beta = .60$; 여, $\beta = .65$). 이를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남녀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모든 하위요인들에 대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나 목적성에 대해 남자집단에서는 설명력이 유의한 변인이 없었다. 준비성과 확신성에 대해서는 남녀모두 진로효능감과 함께 모애착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성 요인에 대해서는 여성집단에 있어 부애착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 = -.16$). 이러한 결과는 진로태도성숙도에 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며, 하위요인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설명력을 지니나 이는 남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음을 나타낸다.

부모애착과 진로태도 성숙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부모애착이 진로태도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 (1996)의 모형에 의거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4, 5와 표 6에 제시하였

표 3. 부모애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집단	독립변인	β	t	R^2	F
진로성숙도	남	진로결정자기효능감	.59	11.34***	.36	128.64
	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65	14.32***	.42	205.08
1. 결정성	남	진로결정자기효능감	.48	8.34***	.23	69.56
	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48	9.19***	.23	84.49
2. 준비성	남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7	6.29***	.26	39.99
		모애착	.26	4.43***		
	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41	7.39***	.20	34.98
		모애착	.11	1.99*		
3. 독립성	남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1	5.08***	.10	25.82
	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4	5.93***	.12	18.84
		부애착	-.16	-2.76**		
4. 목적성	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07	5.22***	.09	27.25
5. 확신성	남	진로결정자기효능감	.54	9.93***	.36	66.81
		모애착	.16.5	3.045*		
	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63	13.71***	.44	109.67
		모애착	.09	2.09*		

다.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만족해야한다. 첫째, 독립변인의 매개변인에 대한 효과가 유의해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독립변인의 β 계수가 유의미 수준에서 무의미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완전매개, β 계수가 감소하기는 하나 무의미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분 매개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을 남녀로 구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진로태도성숙도와 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효

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4와 표 5에 남자 집단에서 부애착과 모애착을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남자 집단에서 부애착을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표 4),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애착이 매개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29, p = <.001$), 두 번째 독립변인인 부애착이 종속변인인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beta = .23, p = <.001$). 세 번째 단계의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나($\beta = .58, p <.001$) 독립변인인 부애착이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영

표 4 남자대학생의 부애착과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비표준화계수		β	t
		B	SE		
1	독립변인 → 매개변인				
	부애착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4	.07	.29	4.61***
2	독립변인 → 종속변인				
	부애착 → 진로성숙도	.30	.08	.23	3.58***
3	1) 독립/2)매개변인 → 종속변인				
	1) 부애착 → 진로성숙도	.08	.07	.06	1.11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65	.06	.58	10.54***
단계 1	$R^2=.08, F(1,233)=21.21, p=.000$		* $p < .05$, ** $p < .01$, *** $p < .001$		
단계 2	$R^2=.05, F(1,233)=12.79, p=.000$				
단계 3	$R^2=.36, F(2,232)=64.99, p=.000$				

향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독립 변인인 부애착의 설명량은 단독일 경우, 5%였으나 $[F(1, 233) = 12.79, p < .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투입되었을 때는 36%로 증가하여 $[F(2, 232) = 65.00, p < .001]$ 총 31%가 증가하였다. 이는 부애착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한 완전 매개효과만이 유의함을 보여준다($z = 4.43, p < .001$).

남자 집단에서 모 애착을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표 5),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 변인인 모애착이 매개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eta = .27, p = < .001$), 두 번째 독립변인인 모 애착이 종속변인인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beta = .15, p = < .05$). 세 번째 단계의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진로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나($\beta = .58, p < .001$) 독립변인인 모애착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유의

하지 않았다($\beta = .05, p = .054$). 독립변인인 모 애착의 설명량은 단독일 경우, 7%였으나 $[F(1, 233) = 17.98, p < .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투입되었을 때는 36%로 증가하여 $[F(2, 232) = 64.57, p < .001]$, 총 29%가 증가하였다. 이는 모애착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한 완전 매개효과만이 유의함을 보여준다($z = 3.93, p < .001$).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남자집단에서 부와 모애착은 진로태도성숙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한 완전 매개효과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집단에서 부 애착은 종속변인인 진로성숙도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아($\beta = .11$, 무의미수준)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선행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중다회귀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선행조건을 만족하는 모 애착을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

표 5 남자대학생의 모애착과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비표준화계수		β	t
		B	SE		
1	독립변인 → 매개변인				
	모애착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3	.08	.27	4.24***
2	독립변인 → 종속변인				
	모애착 → 진로성숙도	.19	.08	.15	2.48*
3	1) 독립/2)매개변인 → 종속변인				
	1) 모애착 → 진로성숙도	.06	.08	.05	.82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66	.06	.58	10.70***
단계 1	$R^2=.02, F(1,233)= 6.15, p=.014$		* $p < .05$, ** $p < .01$, *** $p < .001$		
단계 2	$R^2=.07, F(1,233)=17.98, p=.000$				
단계 3	$R^2=.36, F(2,232)=64.57, p=.000$				

석 결과(표 6)만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모애착이 매개변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24, p = <.001$), 두 번째 독립변인인 모애착이 종속변인인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beta = .20, p = <.001$). 세 번째 단계의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나($\beta = .65, p = <.001$) 독립변인인 모애착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1$, 무의미 수준). 그러나 독립변인인 모애착의 설명량은 단독일 경우, 6%였으나 [$F(1, 282) = 17.78, p <.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투입되었을 때는 42%로 증가하여 [$F(2, 281)=102.24, p <.001$], 총 36%가 증가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진로성숙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가졌으며, 그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보여준다($z=4.02, p<.001$). 이와 같이

여자집단에서는 부애착은 제외되고 모애착만이 진로태도성숙도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한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검증해본 결과, 남자 집단에서 부와 모에 대한 애착이, 여자집단에서는 모에 대한 애착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서만 부모애착(남자)과 모애착(여자)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이를 총설명량으로 비교해 보면, 남자집단에서 부애착, 모애착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31%, 29%의 설명량의 증가를 보였고 여자집단에서는 모애착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36%의 설명량의 증가를 보였다.

표 6. 여자대학생의 모애착과 진로태도성숙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비표준화계수		β	t
		B	SE		
1	독립변인 → 매개변인				
	모애착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9	.07	.24	4.22***
2	독립변인 → 종속변인				
	모애착 → 진로성숙도	.28	.09	.20	3.14***
3	1) 독립/2)매개변인 → 종속변인				
	1) 모애착 → 진로성숙도	.02	.06	-.01	-.27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70	.05	.65	13.93***
단계1	$R^2=.04, F(1, 282)= 9.84, p=.002$		$*p <.05, **p<.01, ***p<.001$		
단계2	$R^2=.06, F(1, 282)= 17.79, p=.000$				
단계3	$R^2=.42, F(2, 281)=102.24, p=.000$				

논 의

본 연구는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진로발달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사용한 변인들을 남녀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남녀 차이가 일부 하위요인들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의 독립성과 확산성에서 남자 집단이 높고 목적성은 여자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기학과 이학주(2000) 연구에서 독립성이 남자집단에서 높게 나온 부분과 일치하였다. 부와 모에 대한 애착수준은 박수길과 이영희(2002)의 연구와 같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모에 대한 애착 수준이 여성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던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의 결

과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없었다.

둘째, 상관분석결과 부나 모에 대한 애착, 자기진로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상관관이 있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진로성숙도의 소척도별로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부와 모에 대한 애착은 독립성이나 목적성과는 상관관이 유의하지 않았고 부적인 경향을 보였다. 남녀에 따라 부애착과 모애착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가설에 따라 남녀 집단으로 나누어 상관분석을 실시해보았다. 그 결과 남자집단에서는 유의미했던 부애착과 진로성숙도와의 상관관이 여자집단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모애착은 남자집단에서는 결정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나 여자집단에서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남녀 집단별 상관분석 결과는 부와 모에 대한 애착수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남자 대학생들에 비해 여자 대학생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나

타낸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본 수가 많지 않으므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추후 연구를 통해 일치되는 결과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녀 모두 진로확신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것은 이희영(1999)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진로선택에 대해 높은 신념과 확신을 얻는 것이 진로태도 성숙 요인 중에서 부모와의 애착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부모와의 애착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도 전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남녀 집단에 따라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목적성에 대해 남자집단에서는 설명력이 유의한 변인이 없었으나, 준비성과 확신성에 대해서는 남녀모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함께 모애착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성 요인에 대해서는 여성 집단에 있어 부애착이 추가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태도성숙도에 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며, 하위요인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설명력을 지니나 이는 남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음을 나타낸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수준이 준비성, 목적성, 확신성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대생 뿐 아니라 남자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도 어머니와의 애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남자집단에서 목적성을 설명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들이 없었고 여자 집단에서 독립성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이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진로태도

성숙도의 하위변인들에 대한 어머니와의 애착 수준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이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보이는 것이며, 아버지와 높은 애착수준이 여학생들이 진로결정 시 자신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의존적으로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 요인들 간에는 매우 높은 상관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와 모에 대한 애착수준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영향력이 남녀 집단 별로 달리 나타났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전략, 태도, 신념들이 다르게 기능한다는 이론을 지지하는(Parke & O'Leary, 1975) 결과로 볼 수 있다.

넷째, 부모애착이 진로태도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96)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Sobel test를 실시하여 그 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와 모애착은 진로태도성숙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하여 부분적인 영향력을 지녔다. 즉 부애착은 남자집단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완전 매개로 하여 진로태도성숙도에 영향을 미쳤다. 모애착은 남자와 여자 집단 모두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완전 매개로 하여 진로태도성숙도에 영향을 미쳤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도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태도성숙에 영향력을 지닌다는 것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진로태도성숙을 예측하는 더 강력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이은경과 이혜성(200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애착연구들에서 부에 대한 애착과 모에 대한 애착 수준이 남녀에 따라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있는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박수길과 이영희(2002)는 남자 집단에서 모와의 애착이 정체감수준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부와의 심리적 독립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여자집단에서 부와의 애착이 진로성숙도의 독립성요인에 대해 부적인 영향력을 지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심리적 독립성을 변인으로 추가하여 다루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남녀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애착을 부애착과 모애착 변인으로 분리하여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애착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이 어머니와의 애착 요인에 중점을 두고 분석함으로써 아버지와의 애착이 남녀에 대해 차별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아버지와의 애착이 아들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에 비해 딸에 대한 영향력이 적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우리사회에서 자녀 양육과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을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둘째, 많은 진로에 대한 연구들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여 진로성숙도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거나 다양한 개인적 변인들이 종속변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을 설명하는 정도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그 자체가 '진로선택이나 결정과 관련된 효능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변인들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나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개인의 자기효능감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찾아내는 일,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찾아내는 것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진로성숙을 포함한 다양한 적응과 발달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애착을 측정하는 데 있어 동일한 문항들을 사용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것으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되어있는 척도를 사용하여 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지녔을 수도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을 측정하였다. 이는 신지은 등(2009)의 연구에서도 제한점으로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며 추후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이라는 속성에 대한 질적인 연구와 해석을 위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남녀가 가지는 성차에 관심을 두었으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만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진행되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가지는 진로태도성숙에 대해 가지는 매개효과에 대한 부분적인 결과만을 얻을 수 있었다. 추후 연구 설계에서는 성차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변인이나 개인변인들을 추가하여 보다 다양한 경로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의 상관분석에서의 통계치가 표본의 수로 인해 다소 과장되었을 수 있어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거나 일반화시

키기는 경우에는 조심스런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진로발달이 성인기 이후의 발달과정에서 인지적·정서적·사회적인 측면의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됨이 밝혀지면서 진로성숙이나 진로관련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변인들만큼 그 연구결과들도 일치된 결과들을 축적하기 어려워 연구자들에게 많은 과제를 남겼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한 진로관련 변인들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의미를 축적해나갈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차연, 박경 (2001). 대학생들의 애착과 진로 발달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51-69.
- 김순영 (1999). 내담자의 부모유대 및 성인 애착 능력이 상담동맹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재희, 주은선 (2001). 부적응 청소년집단의 애착유형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95-105
- 박고운, 이기학 (2007). 진로결정자율성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409-422
- 박영림, 최해림 (2002).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애착, 부부갈등 지각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741-755.
- 박지아, 유성경 (2003). 적응 유연성과 영적 안녕 및 부모 애착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5(4), 765-778.
- 방희정 (2009). 애착연구를 통해 본 부모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67-91.
- 신지은, 방희정, 윤진영 (2009). 애착과 대인관계: 여대생 부모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34-363.
- 옥정 (1998).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영지, 이기학 (2007).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태도 성숙과의 관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 동기를 매개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23-1039.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2-136
- 이내은 (2002).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청소년의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 (2009). 진로장애와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75-392
- 이은경, 이해성 (2002).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09-120
- 이은진 (2001).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

-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향심 (2007). 부모애착, 성역할 정체감, 자존감 및 진로 장벽의 구조 모형 검증: 우수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2001). 대학생의 심리 사회적 특성과 진로탐색활동의 인과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15(3), 257-280.
- 이희영 (1999).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대한 부모-자녀 간의 심리적 분리 및 애착관계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1), 239-259
- 임진 (2003). 애착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 (2002).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115-130
- 조아미 (2002). 청소년의 성별과 성역할 정체감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91-108
- 조영주, 최해림 (2001).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성인애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71-91
- 최현영, 서영석 (200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애착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415-442.
- Ainsworth, M. D. S. (1979). Attachment as related to mother-infant interaction. *Advances in the Study of Behavior*, 9, 2-52.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3.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9).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preliminary test manual.(Available from M. T. Greenberg, College of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ark, PA).
- Bandur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lsky, J., Gilstrap, B., & Robin, M. (1984).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I. Stability and change in mother-infant and father-infant interaction in a family setting at one, two, three, and nine months. *Child Development*, 58, 787-795.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etz, N. E., Heesacker, R. S., & Shuttlesworth, S. C. (1990). Moderators of the congruence and realism of major occupational plans in college student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269-276.
- Betz, N. E., & Vo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 Development Quarterly*, 46, 179-189.8
-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1), 39-50.
- Borgen, F. H. (1991). Megatrends and mildstones in vocational behavior: A 20 year counseling psychology retro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 263-290.
- Crane, M., & Markus, H. (1982). Gender identity: The benefits of a self-schema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1195-1197.
- Crites (1978).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Monterey, CA: College Testing Board/McGraw-Hill.
- Farmer, H. S. (1985). Model of career and achievement motivation for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3), 363-390.
- Felsman, D. E., & Blustein, D. L. (1999). The role of peer relatedness in late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 279-295.
- Gianakos, I. (1995). The Relation of Sex Role Identity to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6(2), 131-143.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Holland, J. H. (1992).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Kagan, J. (1964). Acquisition and significance of sex typing and sex role identity. In M. Hoffman & L. Hoffman(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pp.137-167).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Kenny, M. E. (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 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1), 17-29.
- Lapsley, D. K., Rice, K. G., & Shadid, G. E. (1989).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86-294.
- Mallinckrook, B., Gantt, D. L., & Coble, H. M. (1995) Attachment patterns in the psychotherapy relationship: Development of the client attachment to therapist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307-317.
- Matsui, T. (1994). Mechanism underlying sex differences in career self-efficacy expectation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177-184.
- Mitchell, L. K., & Krumboltz, J. D. (1984). Research on decision making.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ist*, 251-280. New York: Wiley.
- Noom, J, F., Dekovic, M., & Meeus, W. H. J. (1999). Autonomy, attach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a double-edged sword? *Journal of Adolescence*, 22, 771-783.
- O'Brien, K. M. (1996). The influence of

-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8(3), 257-274.
- O'Brien, K. M., Friedman, S. M., Tipton, L. C., & Linn, S. G. (2000). Attachment, separation, and women's vocation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301-315.
- Rutter, M. (1981).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concepts: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6, 549-571.
- Ryan, N. E., Solberg, V. S., & Brown, S. D. (1996). Family dysfunctio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search self-efficacy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1), 301-315.
- Solberg, V. S., Good, G., Fischer, A. R., Brown, S. D., & Nord, D. (1995).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search activities: Relative effects of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human agen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4), 448-455.
- Super, D. E. (1955). Dimensions and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57, 151-163.
- Super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 1 차원고접수 : 2009. 11. 9.
심사통과접수 : 2009. 12. 1.
최종원고접수 : 2009. 12. 28.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s Mediator

Eun Jin Lee

Kyonggi University

Sang Hee Lee

Kwangwoon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relations among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arent attachment,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is study investigated how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variables relate to career maturity variables. The sample of the present study consisted of 519 college students (235 males and 284 females). The participants completed questionnaires of parent attachment (IPPA-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DMSES-SF), and career maturity. The results show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on sub-factors of career attitude maturity. Second, a series of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several sub-scales of attachment to father and mother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factors affected career maturity.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 of multi-regression analysi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redicted the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Especially, the attachment to mother had effects on two sub-factors of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mediated complete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udents'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arental attachmen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attitude maturity.